

전쟁하는 왕이신 예수님, 그리고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애곡 (사 63-64)

I. 이사야 63-64 장의 개관

- A. 이사야는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전쟁하는 왕으로서 오실 것을 예언했다(사 63:1-6). 그는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행진하시면서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을 살육하시는 것을 보았다 그는 전쟁하는 왕(사 63:1-6)으로서, 약속된 것과 같이(사 61-62 장)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기름부음 받은 한 분(사 61:1-3)을 목격했다. 이사야는 그 분이 오실 것을 부르짖는 애가를 기록했다(사 63:7-64:12).
- B. 성경에서 애가(애곡함)는 죄나 대적의 공격, 하나님의 명백한 침묵으로 인한 큰 고통이나 슬픔, 과거에 대한 후회를 나타내는 기도이다.
- C. 이사야는 자신의 시대에 아하스 왕(대하 28 장)과 므낫세 왕(대하 33 장)에 의해 예루살렘이 더럽혀지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며 개입해주실 것을 위해 기도했다. 그는 미래에 이스라엘의 최악이 증가하며(사 56:9-57:13; 58:1-3; 59:1-15; 64:5-7; 65:1-7), 이방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지만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개입하셔서 도우실 미래를 예언적으로 목격했다.
- D. 이사야는 그러한 부정적인 시간대에 대해 예언하는 가운데, 열심으로 기도를 드리며 애곡했다(사 63:7-64:12). 이 기도는 많은 이들이 역사를 통해 느꼈을 것을 말해주고 있다. 예루살렘의 가장 심각한 절망적인 시간은 그들의 성전과 성소가 파괴된 BC 586 년과 AD 70 년이었다(사 63:18; 64:10-11). 이는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이 포위될 때에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(슌 12:3; 14:2).
- E. 그의 애가는 주께서 예루살렘에 대한 관심을 잃으셨다고 생각하는 많은 이들의 오해를 나타내준다.
1. 이 기도는 특별히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의 재건된 성전이 더럽혀질 때에 귀중한 기도가 될 것이다(단 8:23-25; 9:25-27; 11:31-39, 45; 계 11:2).
 2. 우리는 이 애가에서 드러난 원리들을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적용하며, 성령님의 더 큰 돌파가 우리의 도시와 가정, 사역과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를 기도해야 한다.
- F. **이사야 59-66 장의 개관**
사 59:15-21 예수님께서서는 전쟁하는 왕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오셔서 자신의 모든 대적들을 심판하실 것이다.
사 60-62 예수님께서서는 오셔서 예루살렘을 구하시고, 구원하시고 자신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실 것이다.
사 63:1-6 전쟁하는 왕이신 예수님께서서는 예루살렘을 둘러싼 마지막 때의 군대들을 멸하실 것이다.(사 59:15-63:6 절은 전체적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, 전쟁하는 그분으로 시작해서 끝이 난다)

사 63:7-64:12 는 국가적인 죄악을 고백하며, 하나님께서 권능을 보여주실 것에 대한 애가이다.

사 63:7-14 하나님의 과거의 자비하심(모세의 날에 보여주신 것처럼)을 돌아봄

사 63:15-19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애가

사 64:1-5a 하나님께서 이사야 59:15-21; 63:1-6 의 전쟁하는 왕으로서 오실 것에 대한 기도

사 64:5b-12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큰 죄악을 고백하며,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열심으로 개입하여 주실 것을 구함

사 65-66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로 드러지는 애가에 대해, 자신은 항상 이스라엘을 향한 열심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, 그분이 개입하셔서 의로 가득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할 것을 말씀하신다 (사 65:17-66:15).

II. 전쟁하는 왕이신 예수님 (사 63:1-6)

- A. 이사야는 에돔(오늘날의 요르단)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행진하여 오는 전사를 목격한다 (1 절). 전쟁하는 왕이신 예수님께서서는 오셔서 예루살렘을 둘러싼 마지막 때의 군대들을 멸하실 것이다.

¹ 에돔에서 오는 이는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,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[예수님]이니 공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(사 63:1)

- B. 예수님께서서는 왜 자신의 의복이 포도즙 틀을 밟은 것처럼 붉은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신다 (2-3 절).

² 어찌하여 네 의복이 붉으며 네 옷이 포도즙틀을 밟는 자 같으냐 ³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(사 63:2-3)

1. 예수님께서서는 단 한 번의 일에서 모든 악한 정부 지도자들을 모으고, 죽이고, 교체하실 것이다. 역사상 단 한 번도 땅의 모든 왕들이 한 곳에 자신들의 군대와 함께 모인 적이 없었다. 이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틀로 불리는데, 이는 예수님께서 열방의 군대들을 마치 포도처럼 밟으심으로 천년왕국의 새로운 세계 질서를 세우실 것이기 때문이다.

¹³ 또 그[예수님]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... ¹⁵ ...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... ¹⁹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(한글 KJV: 대적하여) 전쟁을 일으키다가 ²⁰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... ²¹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에 죽으매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(계 19:13-21)

2. 진노의 포도즙 틀은 예루살렘 바깥의 여호사밧 골짜기에 위치하게 될 것이다.

¹² [모든]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¹³ ...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큼이로다 (을 3:12-13)

¹⁹ 천사가 낮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²⁰
성[예루살렘]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천육백
스다디온[200 마일=320km]에 퍼졌더라 (계 14:19-20)

C. 주께서는 왜 자신이 열방을 그러한 분노로 심판해야 하는지를 설명하신다 (4 절).

⁴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(사 63:4)

D. 하나님께서는 회개치 않는 열방을 짓밟으실 것이다; 이는 틀림없이 일어날 것이며,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일이다 (6 절).

⁵ 내가 본즉 도와 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⁶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[모든 열방들]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[한글 KJV: 나의 분노로 그들에게 마시게 하리라]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(사 63:5-6)

E. 사 59:15-63:6 절은 전체적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, 전쟁하는 그분으로 시작해서 끝이 난다.

¹⁷ ...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겹옷으로 삼으시고 ¹⁸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¹⁹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뜬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 같이 오실 것임이로다 [한글 KJV: 원수가 홍수처럼 올 때에 주의 영이 그를 대적하여 깃발을 올리시리라] ²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과를 떠나는[회개하는] 자에게 임하리라 (사 59:17-20)

III. 이사야와 이스라엘의 애곡함, 애가 (사 63:7-64:12)

A. 이사야의 애가는 국가적인 죄악을 고백하며, 하나님께서 권능을 보여주시기를 구한다 (63:7-64:12). 이 애가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그들로부터 감추셨다고 주장하고 있다 (64:7). 주님은 자신이 겸손한 자들에게 반응하시는 분이며, 그들을 지속적으로 불러왔지만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다 (65:2, 12; 66:4). 문제는 이스라엘이 정직하게 주를 찾기를 거절한 데에 있었다 (65:2-5).

B. 이사야는 하나님의 과거의 자비와 긍휼을 돌아본다 (63:7-14). 이는 기도의 핵심 원리이다.

⁷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,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[한글 KJV: 그의 자비에 따라, 그의 많은 자애를 따라]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(사 63:7)

C.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 하신 말씀을 상기시켜드리며 (63:8), 자신의 백성이 고통 당할 때 함께 고통을 느끼시는 분이심을 상기시켜 드린다 (63:9).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광야의 날들 가운데 안고 오셨다 (출 19:4; 신 1:31).

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⁹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의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[한글 KJV: 안고 다니셨도다] (사 63:8-9)

D. 이스라엘은 반역했고, 주님은 그들과 싸우셨다.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이에 대해 교회에게 경고하신다 (63:10; 계 2:16).

¹⁰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(사 63:10)

¹⁶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(계 2:16)

E.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과거의 일하심을 기억하면서, 그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 수 없었던 것으로 인한 고통을 표현했다 (63:11).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기적적인 팔을 기억했다 (63:12-14a). 이스라엘은 절기와 찬송들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했다 (시 55:5-6; 106:8-9; 136:12-13).

¹¹ [이스라엘]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¹²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...¹⁴ ... 주께서 이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대 하였느니라 (사 63:11-14)

F. 이 애곡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 마음을 바꾸신 것이 아닌지 묻는다 (63:15).

¹⁵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시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대 [한글 KJV: 그것들이 억제되었나이까?] (사 63:15)

G. 이사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아버지이심을 선포한다 (63:16).

¹⁶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,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(사 63:16)

H.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지 않으심으로 그들이 길을 잃게 만들어버렸다고 불평한다 (63:17-19). 그들은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성소, 성전을 파괴해버렸다고 부르짖으며 (63:18); 이스라엘이 마치 하나님과는 아무런 특별한 관계가 없는 다른 나라들처럼 되어버렸다고 부르짖는다 (63:19).

¹⁷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¹⁸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¹⁹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대 (사 63:17-19)

IV. 주께서 권능으로 임해주실 것에 대한 기도 (64:1-5A)

- A. 이사야는 이사야 59:15-21; 63:1-6 절의 전쟁하는 왕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시기를 기도한다 (사 64:1-5). 상황이 얼마나 좋지 않은지를 주께서 보실 것을 구한 후에 (63:15), 이사야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이들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(64:3) 피로 물들은 전사께서 충만한 권능으로 개입하여 주시기를 구한다.
- ¹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² 불이 섰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이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³ 주께서 [시내산에서]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 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(사 64:1-3)
- B.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시며 (64:4) 의롭게 살기를 기뻐하는 모든 이들을 만나주신다 (64:5).
- ⁴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⁵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[한글 KJV: 만나셨으니] 우리가 범죄하므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 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(사 64:4-5)

V. 죄의 고백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일하심을 구함 (64:5B-12)

- A. 이사야는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죄악으로 인함임을 고백한다 (64:5b-7).
- ⁵ ... 우리가 범죄하므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 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⁶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앞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 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⁷ 주의 이름을 [지속적으로]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라 (사 64:5b-7)
- B. 이사야는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말 것을 기도하며, 그들의 아버지(부드러움)이며 토기장이(주권)이신 하나님께 호소하며, 그들의 절망적인 상황을(64:10-11) 돌아보아주실 것을 (64:8-9) 구한다. 그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지 않고 잠잠하심을 불평한다 (64:12).
- ⁸ 그러나 여호와여,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라 ⁹ 여호와여,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¹⁰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¹¹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... ¹²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(사 64:8-12)